

Maison

메종 **marie claire**

2007 January

본질에 충실한 아름다움

스칸디나비아 스타일

20세기 가구 디자인의 거장
에로 아르니오의 집

New year Beauty plan

네팔, 신들의 세상으로 가는 입구

Share
Your Hearts!

메종의 친절한 기부와 봉사 가이드

**Party Meets Design,
WOW!**

1월에 먹어야 제 맛인
생선요리

부엌을 똑똑하게 만드는
소형 가전과 조리 도구

Special 가로수길, 꿈꾸는 자의 거리

정가 6,000원

Respect for Korea Style

대형 서점의 외서 코너를 보면 한국 스타일에 대한 인테리어 서적이라곤 단 한 권도 찾아볼 수 없는게 늘 불만이었다. 그 안타까움을 해소시켜 줄 책이 바로 마샤 이와다테의 '코리아 스타일'이다. 에디터 | 한예준

마샤 이와다테(Marcia Iwatate)는 일본 디자인과 산업계에서 촉망 받는 디자이너의 한 사람이다. 한국인 남편을 둔 그녀는 동경과 서울을 오가며 레스토랑 컨설팅, 히즈키(Hizuki)를 위한 조명 컬렉션과 타임&스타일(Time & Style)의 테이블웨어 컬렉션을 선보이고 있다. 그녀는 이번 책 '코리아 스타일(Korea Style)' 외에도 '재팬 하우스스(Japan Houses)', '이트,워크,숍(eat,work,shop)' 등의 책을 소개해 왔다. '코리아 스타일'은 국제 갤러리의 큐레이터를 지낸 김은수 씨와 공동 작업으로 펴낸 것으로 사진은 (매종)의 포토 디렉터이기도 한 포토그래퍼 이종근 실장이 맡았다. 한국적인 아름다움에 대한 열정과 끈기로 세 사람이 이뤄낸 책 '코리아 스타일'의 출판 기념회에서 저자 마샤 이와다테를 만났다.

와, 책이 무척 무겁네요.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하셨나요?

리서치하고, 촬영하고, 원고를 쓰는 데까지 거의 삼 년이 걸렸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물론 리서치였죠. 한국어가 서투른 나에게 친구이자 공동 저자인 김은수 씨가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한 오랜 시간 알고 지낸 포토그래퍼 이종근 씨와 함께 작업했는데, 각 장소의 정수를 이끌어내는 그의 훌륭한 실력이 없었다면 아마 이 책은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책의 출판 배경이 궁금하네요. 외국인으로서 어떻게 '한국 스타일'이란 테마를 가지고 책을 출판할 결심을 할 수 있었나요? 한국 스타일의 어떤 면에 끌리셨나요?

이번에 책을 출판한 터틀 출판사는 싱가포르에 헤드 오피스를 둔 회사로 서양에 동양 스타일을 알리는 책을 소개해 왔습니다. 제가 한국 디자인과 건축에 대해 책을 낼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에 이 테마에 대한 국제적인 시도가 전무했던 만큼, 매우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제가 코리아 스타일을 테마로 책을 펴내고자 한 의도는 국제적으로 일본의 것으로 알려져 있는 미적 가치들, 자연에 대한 외경심, 심플함, 영적인 것, 절제성 등이 본질적으로 한국적인 것이라는 점을 소개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12년 전에 인테리어 디자이너인 한국인 남편과 결혼했고, 그는 나에게 전통적인 한국 건축, 아트, 공예의 좋은 예들을 많이 보여줬어요. 그 과정에서 국제적 디자인의 주요 컨셉으로 자리한 일본적인 미적 가치가 한국에서 기인한 것임을 간파했고, 그것이 나에게 이 책을 저술하도록 종용했습니다.

한국적인 스타일에서 가장 훌륭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집주인 개개인의 라이프스타일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집에 대한 그들의 열정과 사랑, 소중하고 있는 컨템포러리 아트와 엔틱의 우수함, 그리고 이것들을 일상에서 훌륭하게 믹스해 소화하는 것에 대해 말이지요. 또한 각 장소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을 담기 위해 아침부터 저녁까지 신세지곤 했던 저희들을 환대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대부분의 서양인들은 한국과 일본 스타일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 차이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일본 문화를 연상케 하는 미적 느낌이 본질적으로는 한국적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는 데에 이 책이 도움을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나라 문화의 차



이점은 형식과 구조상의 근본에 있습니다. 일본인들이 더욱 형식적이고 상징적인 미적 느낌을 창조하기 위해 유사한 자신들의 개념을 정교히 완성했다면, 한국은 그 표현 방식에서 형식에 구애 받지 않는 것이 특이합니다. 조화와 유연성, 자발성은 한국의 문화와 라이프스타일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 전통은 특별히 조화로운 관계를 창조하며 현대적인 한국 스타일의 여러 가지 대조적인 요소들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이 IT 기술과 프라즈마 TV, 휴대전화의 강국으로 부상한 것처럼 이 책이 도움이 되어 한국적인 건축 디자인 역시 수출 리스트에 포함시키기를 바랍니다.

이 책에 소개된 장소들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공간으로 어디를 꼽을 수 있을까요?

모든 공간이 다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좋아하는 전통 건축은 경북 안동시에 있는 병산서원입니다. 그곳의 건축술과 아름다움이야말로 제가 이 책의 컨셉을 이어갈 수 있었던 동기입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주세요.

건축가와 디자이너가 그들의 작품을 통해 표현한 '건축학적인 민족주의'를 이해함으로써 한국적인 심미주의를 생활에 도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는 점점 더 글로벌화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를 확장하고,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부분의 나라는 자신들의 건축과 문화 유산을 잃어가고, 디자인과 자연의 통합, 유산에 대한 존중을 위한 포괄적인 접근은 성공을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책에서 보여주듯 '스타일'은 알파 하거나 실용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본질이자 용화이며, 장래성입니다.

'Korea Style'(Tuttle Publishing, 3만 9천 원)에는 경북 안동시 병산서원, 동송동 쇓대 박물관, 종로구 원서동의 공간 사육, 패션 디자이너 진태욱의 집 등 한국적인 간결함, 자연친화, 절제미가 담긴 24곳의 공간이 소개되어 있다.

